

##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비교

안 월 분\* · 이 재 구\*\* · 김 영 희\*\*\*

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 충북대학교 대학원\*\*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The Comparison of Psycho-Social Environment Between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Romantic Partners

Ahn, Wol-Bun\* · Lee, Jae-Goo\*\* · Kim, Yeong-Hee\*\*\*

*Jungang Girls High School\* ·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psycho-social environments by the variables of sex and type of school. Subjects in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1,011 adolescents drawn from 11 high schools in Cheongju city and Choengwon gun. For data analysis, t-test and three-way ANOVA were conducted by SPSSWIN program. This results were as following:

Boys' high school students who having romantic partners had lower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than those without romantic partners. Girls' high school students who having romantic partners had lower peer relationships and behavioral adjustment than those without romantic partners. Also, regardless of school types, students with romantic partners had lower 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al adjustment than those without romantic partners. In a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with romantic partners had negative family relationships, whereas in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s with romantic partners had peer relationships more negatively than those without romantic partners.

This results suggest that adolescents' romantic partners be important factor of social-psychological development. Especially, romantic partnership would be critical to induce problem behavior such as maladjustment and negative relationships in the environments of family and school.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발달 단계로 성과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다. 이성과의 사랑을 꿈꾸고, 실제로 이성을 만나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며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신체적·성적 매력에 관심을 갖고, 이성을 통해 발산하고 싶어할 뿐이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개인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애착대상을 친구와의 관계에서 추구한다. 대인관계가 부모로부터 친구로 전이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동성친구의 역할을 강조해 왔고, 이 시기의 우정은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원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성교제가 청소년들의 하위문화의 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동성간의 관계와 함께 이성간의 관계도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성교제를 통한 입맞춤, 성관계 등의 성행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성교제가 탈선, 10대 임신, 청소년 성매매 등의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되었다. 청소년 문화에서 이성교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보편적인 현상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성교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 이유는 첫째, 이성교제를 주로 성인의 발달과업이라 여겨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해왔기 때문이고, 둘째, 발달단계상 청소년기는 변화가 많은 시기라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이성과의 관계에 변화가 매우 심하여 심도 있는 분석연구보다 실태조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셋째, 용어상의 혼동, 즉, 그냥 아는 이성친구, 동성친구와 같은 개념의 이성친구, 이성교제 친구에 대하여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성 자체를 이성교제라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시작 자체가 우연적이며,

관계가 성인들의 경우처럼 배타적이라기보다 관계의 변화가 심하고, 교제의 유지기간이 짧아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제한점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Shulman & Scharf, 2000). 또한 청소년의 이성 상대는 그 교제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성교제 하는 사람과 이성친구와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즉, 이성상대를 상상 속의 이성에서부터 실제로 교제를 하는 이성을 포함할 뿐 아니라 단기간의 만남에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남까지 시간적인 범위도 매우 넓다는 점이 중요한 특성이다. 더욱이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친밀한 우정(close friendship)에서 소개팅이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한 일시적인 교제, 둘만의 만남을 즐기는 배타적 데이트 관계(exclusive dating)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LaVoie, Johnson, Mahney, Ramet, & Anderson, 1998). 때때로 청소년들 자신도 자신과 이성간의 관계가 이성간의 우정인지 애인관계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Leaper & Anderson, 1997). 따라서 선행연구는 이성교제와 이성친구와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기의 이성교제와는 달리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에 많은 제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국외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성인의 이성교제에 준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의 이성교제 양상과 비슷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관하여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러한 제한점들로 인해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실태조사(한국청소년개발원, 1995)나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의 성행동이나 성태도(박성정, 1996; 박은령, 2000)에 한정되어 있었다. 더욱이 이성교제에 관한 사회의 허용 수준이 높아져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지도방안이나 대응책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 이성관계 연구에서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발달적 맥락이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심리적 특성 맥락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의 실용성에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기에 이미 보편화된 청소년 문화로 정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이를 바탕

으로 한 접근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들과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발달단계 면과 일상생활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해 교사나 부모가 우려하는 면들을 여러 각도로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지도하는 데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할 요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즉,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회환경(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과 심리적 특성(발달적 맥락의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과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아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성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상담,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성에 따라 이성교제 유무는 사회심리적 특성(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2) 학교유형에 따라 이성교제 유무는 사회심리적 특성(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3) 성, 학교유형 및 이성교제 유무는 사회심리적 특성(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이성교제 개념

이성교제의 개념은 나와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과 만나는 것에서부터 사랑을 나누는 것까지 폭넓게 적용되나 그 범위가 이성친구, 연인, 애인 등으로 다양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이성교제를 흔히 '데이트한다'라고도 하는데 영어의 'dating'이라는

말로, 젊은 남녀 두 사람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유쾌한 시간을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dating'과 비슷한 용어로 'courtship'이 있는데 남녀의 즐거운 만남뿐만 아니라 결혼의 한 과정인 구애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이성교제를 한다'나 '데이트한다'고 말할 때 단순한 교제와 구애 전단계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발달단계상 우정과 관계에서 이성의 친구로 관계가 발달하는 맥락에서 영어의 'dating'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이와같이, 이성교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연구는 매우 드물었고 지금까지의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기의 성충동이나 성행동을 이해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Connolly와 Goldberg(1999)는 청소년 시기의 이성교제는 동성친구 관계와 비슷한 특성을 갖기 시작하고 연애관계로 발달하기 때문에 연구에 제한점이 있어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현상을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하여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는 이상형, 매력, 느낌, 사고 등 개인 내적 환상에 의한 정의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교제 경험을 통해 정의 내리는 것으로서 이성친구와 실제 교제해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점점 더 많이 원하게 되었고, 이성교제가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지금에서는 이성친구를 단순한 친구의 개념보다는 연인으로 여기고 싶어한다. 이 시기에는 이성관계에 대한 변화가 심하고 청소년의 생활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심도 있는 분석연구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란 '이상적인 이성을 사모하게 되고 우발적인 연애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는 이성이나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이성은 무조건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하면 연애의 경험을 가지지만, 형태는 정신적인 것이어서 친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인과 이성친구의 분화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성적인 욕구와 애정적 욕구를 합일하지 못하고 있고 명확한 경계선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이성교제'로 보고자 한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성교제를 이성과 일대일의 고정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자주 만나거나, 스킨십을 허용할 수 있는 사이이면서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도 지니는 이성친구와의 사립으로 정의하여 이성교제 유무를 살펴보았다.

## 2.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특성

청소년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과 같은 사회환경, 심리적·행동적 적응문제와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은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인들로 사회환경과 적응문제가 절대적인 인과성은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환경은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여진다(Zimmer-Gembeck, Siebenbruner & Collins, 2001).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심리적·행동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최근에 들어서 청소년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성친구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정영숙·김영희·박경옥·이희숙·채정현·이종섭, 1999).

### 1) 청소년의 사회환경

#### (1) 가족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지지원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성친구를 사립으로써 이성에게 의지하고 싶어한다. 또한 이성교제에 대한 가족의 분위기, 부모의 가치관과 태도, 의사소통 등은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Eshel, Sharabany와 Friedman(1998)는 성인 초기의 연애는 청소년시기의 가족관계로부터 예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청소년의 관계 모델이 되어 사회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상대방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고 애착과 존경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이성교제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부모와의 친밀감은 청소년의 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ysless, Wiseman와 Hai(1998)의 연구 결과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부모와의 애착에 더 영향을 받았다.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의 관계형성 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남자 청소년들은 부모의 결혼생활 갈등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심하게 갈등하면 이성교제가 시작된 지 6개월 이내에 애착의 안정성이 감소하였다.

또한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보수적인 태도도 청소년의 이성교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이성교제를 40% 이상이 찬성하는 편이나 여학생의 경우는 25.6%가 찬성하였으며, 반대하는 경우도 남학생의 부모는 20.8%이나 여학생의 부모는 41.1%나 되어 부모가 아들보다는 딸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과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 (2) 친구관계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도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고 로맨틱한 관계를 위한 모델로 작용한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친구관계에서 자신에 관한 기대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본질, 접근가능성에 대한 기대, 반응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roufe & Fleeson, 1986).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지환경과 사회화를 학습할 환경을 제공해 준다.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독립할 시기가 되면 가족, 특히 부모의 품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립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관계가 친구관계이다. 부모 사이에 갈등이 많거나,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청소년들은 자신을 존중해 주고 인정해주는 친구관계에 몰입하게 된다. 즉,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따라서 자주 어울리게 되고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친구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Sharabany, Gerchoni, & Hofman, 1981).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는 동성의 친구보다 이성에게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된다.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는 청소년이 이성친구와 만나는 기회와 횟수가 많고 원만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에 대한 사랑의 이끌림과 만남은 친구들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결국 이성교제를 유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친구관계이다. 특히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주변의 성인이 아닌 친구들에게 의논을 하게 된다. 특히, 자신만의 세계에 속한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하여 동성친구와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과업이 입문제이기 때문에 친구관계,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어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직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친밀도를 가진 친구의 유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히 성의 차이에 따라 이성교제에 차이가 있는지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친밀한 친구관계가 없고, 친구관계 형성에 곤란을 느끼거나 친구집단에 수용되지 않는 청소년들과,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간에 이성교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

### (3) 학교생활

학교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제2의 생활의 장이다. 친구를 만나러 학교에 간다고 할 정도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학습에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이 있거나,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즉, 학교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보다 학교 밖에서 친구들을 찾게 된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 학교환경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형태, 1989; Strommen, 1985).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소속감을 느끼고 흥미있는 생활을 원한다. 이는 청소년의 고민과 문제점 중에서 학교생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때,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할 때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교사에 대한 느낌이 긍정적일수록 학생의 학습의욕은 높아지고 학급활동과 단체활동에 만족하며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문제가 있고 일탈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동성친구보다는 이성친구와 어울리는 기회가 더 많고, 이성친구와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든 성관계까지 맺은 깊은 만남이든 관계없이 이성과의 관계에 더욱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한다.

무엇보다도 학교환경에서 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우선적인 지원체계는 교사이다.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교실 밖의 관계에서도 인간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일차적 원인이 개인의 능력이나 가정환경에 있다하더라도 자신을 지지를 해주고 친근하게 대해주고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은 공부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여기는데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면 일상적인 문제해결에 무엇보다도 더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참을성이 없어지고 과잉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성적과 학교생활 태도에 따라 이성교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보다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생활에 충실하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되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성과 학교유형에 따라 적합한 이성관과 성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고 대학 입시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인문계 학생들은 전인교육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업계 학생을 위해서는 성교육과 아울러 여가 선택방법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청소년의 적응행동

### (1) 심리적 적응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성적 성숙과 신체적 발달이 활발하게 되고 주체성이 형성됨에 따라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빠른 신체 생리적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급격한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불안이 점점 커지고 우울증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의 심리는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한 반면에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고 기쁨과 슬픔, 노여움 등에 관해서 양극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무서움에 대해서는 과감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가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적응과정에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다룬 연구들(박성정, 1996; 박은령, 1998)은 성에 대한 관심과 성의식까지 살펴보았을 뿐 심리적인 원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Zimmer-Gembeck, Siebenbruner & Collins, 2001).

### (2) 행동적 적응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된 원인은 충동성이다. 빠른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성적 욕구를 순화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 자기 열등감으로 인한 일종의 보복심리가 작용하여 탈선과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은 이성교제와 관련이 높다.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지위비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음주와 흡연을 하거나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이성교제가 불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이성친구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강태순, 1994; 박은령, 1998).

특히, 행동적 적응은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부정적인 관계인지 전전한 관계인지 확인시켜주는 요인이다. 즉, 음주를 하거나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일수록 이성교제 기준을 사랑과 신뢰에 두지만 비행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일수록 이성교제를 우정과 같은 개념으로 여겼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성교제는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며, 자신의 견제함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이를 자기 실력, 지위 표시로 과시하면서 이성교제를 건전한 친구관계보다는 부정적인 관계로 보는 경향이 높다.

청소년의 이성교제 연구가 주로 성비행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도 비행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즉, 가족문제,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 등에 직면했을 때 이성교제가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아닌 갈등의 도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놀이문화의 하나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비행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와 신체적인 접촉 빈도가 높아져 비행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강태순(1994)은 비행경험이 있는 여고생일수록 신체적 접촉이 더 많아지고 성관계를 갖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비행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사회문제로 충분히 발전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비행이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암시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과 이성교제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이 이성교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청주시와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설계는 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질문지는 연구자와 담임 교사들이 직접 나누어주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270명,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268명, 실업계 남자 고등학교 290명,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 272명으로 총 1,100명의 질문지가 배포, 회수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이성친구 유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이성친구 있음	이성친구 없음	전 체
		N(%)	N(%)	N(%)
성 별	남학생	105(43.4)	386(50.2)	491(48.6)
	여학생	137(56.6)	383(49.8)	520(51.4)
	계	242(100)	769(100)	1011(100)
학교유형	인문계	91(37.6)	360(46.8)	451(44.6)
	실업계	151(62.4)	409(53.2)	560(55.4)
	계	242(100)	769(100)	1011(100)
부학력	중 졸	52(21.8)	188(24.9)	240(24.2)
	고 졸	123(51.7)	427(56.6)	550(55.4)
	대 졸	63(26.5)	140(18.5)	203(20.4)
	계	238(100)	755(100)	993(100)
모학력	중 졸	70(29.4)	293(38.8)	363(36.6)
	고 졸	142(59.7)	411(54.4)	553(55.7)
	대 졸	26(10.9)	51(6.8)	77( 7.8)
	계	238(100)	755(100)	993(100)
부직업	전문/관리직	98(47.3)	279(41.8)	377(43.1)
	사무/기술직	52(25.1)	175(26.2)	227(25.9)
	판매/서비스직	23(11.1)	102(15.3)	125(14.3)
	농수산업/생산/단순노부직	34(16.4)	112(16.8)	146(16.7)
	계	207(100)	668(100)	875(100)
모직업	유	100(41.3)	347(45.1)	450(44.5)
	무	142(58.7)	422(53.9)	561(55.4)
	계	242(100)	769(100)	1011(100)

2. 측정도구

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

(1) 사회환경

사회환경인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은 Springer (1988)가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한 ACE(Adolescent Concerns Evaluation)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족, 친구, 학교 등의 사회환경을 평가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학교를 다니는 일은 그 어느 것 보다 내게 중요한 일이다" 등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와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가족관계 .82, 친구관계 .79, 학교생활 .84로 나타났다.

(2) 심리특성

청소년의 심리특성은 심리적 적응과 행동적 적응을 통하여 평가되었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은 SCL-

90-R(Derogatis et al., 1976)을 이용하여 청소년이 지난 2주 동안 느꼈던 공격성, 우울·불안, 적대감 등을 측정하였다. "친구들은 내가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짜증을 잘 낸다고 한다" 등 총 1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법에 의해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은 Simons, Johnson 과 Congner(1994)가 청소년 연구에 사용하였던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수정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성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사회적 행동을 하였는가'를 "담배피우기", "늦은 밤에 유흥가 돌아다니기" 등 16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화하여 측정하였다. 청소년의 행동적 적응은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5이었다.

3. 자료분석

회수된 1,100부의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011부가 최종분

〈표 2〉 남학생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변인	이성교제 유무	N	M(SD)	t	
사회심리적 특성	가족관계	있음	104	2.96(.64)	-1.64
		없음	364	3.03(.68)	
	친구관계	있음	103	3.60(.55)	1.48
		없음	380	3.51(.53)	
	학교생활	있음	99	3.00(.63)	-3.32**
		없음	381	3.20(.61)	
	심리적 적응	있음	94	2.80(.65)	.35
		없음	351	2.78(.72)	
	행동적 적응	있음	101	4.60(1.11)	6.80***
		없음	374	3.84(1.24)	

\*\*p&lt;.01 \*\*\*p&lt;.001

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t-test,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의 성별 차이

###### 1) 남학생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남학생은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학교생활( $t=-3.32$ ,  $p<.01$ ), 행동적 적응( $t=6.80$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이성교제를 하는 남학생이 하지 않는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일탈이나 비행행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과 달리 이성교제를 할 경우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성인의 장소에 많이 출입하고,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행동적 부적응을 보여준다는 Zimmer-Gembeck (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성교제를 하는 남학생은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부적응 행동이 많아져 표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나 교사에게 문제행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 2) 여학생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여학생은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친구관계( $t=2.67$ ,  $p<.01$ ), 행동적 적응( $t=6.09$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은 하지 않는 여학생보다 친구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지만 일탈이나 비행행동의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여자 청소년은 사귀는 파트너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불안과 우울증이 심해지고, 이

〈표 3〉 여학생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변인	이성교제 유무	N	M(SD)	t	
사회심리적 특성	가족관계	있음	131	3.64(.64)	-1.67
		없음	369	3.50(.67)	
	친구관계	있음	132	3.64(.50)	2.67**
		없음	381	3.50(.53)	
	학교생활	있음	134	3.03(.62)	-1.67
		없음	377	3.13(.60)	
	심리적 적응	있음	125	3.00(.64)	1.59
		없음	366	2.90(.67)	
	행동적 적응	있음	127	4.87(1.01)	6.09***
		없음	367	4.25(1.11)	

\*\*p&lt;.01 \*\*\*p&lt;.001



〈표 4〉 인문계 학생의 이성교제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변인	이성교제 유무	N	M(SD)	t	
사회심리적 특성	가족관계	있음	94	2.92(.39)	-3.62***
		없음	349	3.09(.39)	
	친구관계	있음	87	3.69(.52)	2.31*
		없음	356	3.55(.51)	
	학교생활	있음	89	3.00(.54)	-3.32**
		없음	353	3.18(.55)	
	심리적 적응	있음	82	2.81(.62)	-.09
		없음	338	2.81(.57)	
	행동적 적응	있음	89	4.93(1.02)	6.15***
		없음	347	4.22(1.08)	

\*p<.05 \*\*p<.01 \*\*\*p<.001

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손상되면서 가족이나 친구관계에도 문제를 가져온다는 Darling, Dowdy, Horn, & Caldwell(1999)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로 이성교제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남녀 학생 모두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생활에서의 행동적 부적응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성교제에 의해 나타난 그 밖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며, 남학생의 경우 이성교제가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학생의 경우 이성교제가 친구관계에서 원만하고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탈행동이나 행동의 부적응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이성교제에 대한 남녀 학생의 차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의 학교유형별 차이

1) 인문계 학생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인문계 학생은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가족관계(t=-3.62, p<.001), 친구관계(t=2.31, p<.05), 학교생활(t=-3.32, p<.01), 행동적 적응(t=6.1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성교제를 하는 인문계 청소년이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가족관계는 다소 원만하지 못하고 친구관계는 더 원만하지만 학교생활의 적응력도 떨어져 일탈이나 비행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실업계 청소년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실업계 청소년은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친구관계(t=2.22, p<.05), 학교생활(t=-2.24, p<.05), 행동적 적응(t=5.8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성교제를 하는 실업계 청소년은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친구관계가 원만한 반면 학교생활의 적응력이 떨어지고, 일탈

〈표 5〉 실업계 학생의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사회심리적 특성

변인	이성교제유무	N	M(SD)	t	
사회심리적 특성	가족관계	있음	146	2.99(.41)	.23
		없음	384	2.98(.39)	
	친구관계	있음	148	3.58(.54)	2.22*
		없음	405	3.47(.51)	
	학교생활	있음	144	3.03(.54)	-2.24*
		없음	405	3.16(.51)	
	심리적 적응	있음	137	2.98(.64)	1.92
		없음	379	2.87(.67)	
	행동적 적응	있음	139	4.56(1.10)	5.80***
		없음	394	3.96(1.14)	

\*p<.05 \*\*\*p<.001

이나 비행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문계 고등학생이나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친구관계, 학교생활, 행동적 적응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대인관계 형성을 원만히 하고 있지만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은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이해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사회심리적 특성에 더욱 현저한 차이를 보여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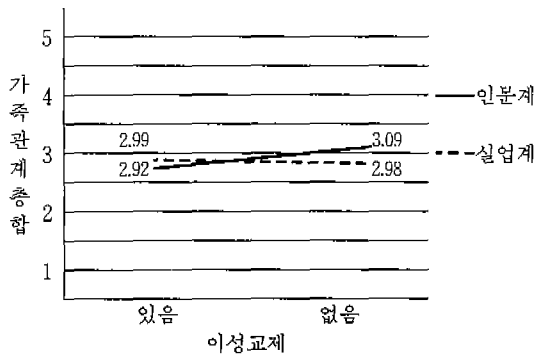
### 3. 성별, 학교유형 및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의 차이

성별, 학교유형 및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 가족관계와 행동적 적응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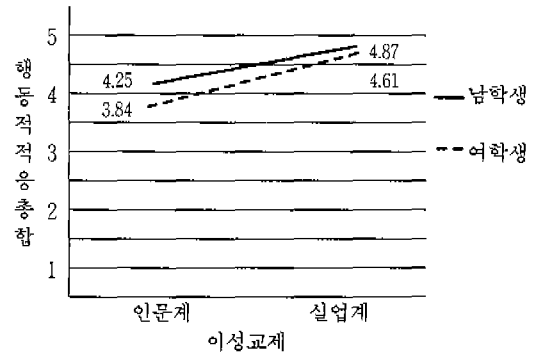
〈표 6〉 성별, 학교유형 및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표준자승	F
가족관계	성별(A)	.03	1	.03	.02
	학교유형(B)	.12	1	.12	.78
	이성교제 유무(C)	.96	1	.96	6.40*
	A × B	.44	1	.44	2.93
	A × C	.03	1	.03	.09
	B × C	1.33	1	1.33	8.91**
	A × B × C	.03	1	.03	.02
친구관계	성별(A)	.07	1	.07	.25
	학교유형(B)	1.54	1	1.54	5.89*
	이성교제 유무(C)	2.56	1	2.56	9.78**
	A × B	.08	1	.08	.31
	A × C	.12	1	.12	.47
	B × C	.07	1	.07	.29
	A × B × C	.06	1	.60	2.28
학교생활	성별(A)	.06	1	.06	1.21
	학교유형(B)	.01	1	.01	12.10**
	이성교제 유무(C)	3.59	1	3.59	.04
	A × B	.46	1	.46	1.54
	A × C	.48	1	.48	1.63
	B × C	.18	1	.18	.60
	A × B × C	.09	1	.09	.01
심리적 적응	성별(A)	3.87	1	2.87	11.05**
	학교유형(B)	1.94	1	1.94	5.54*
	이성교제 유무(C)	.35	1	.35	1.00
	A × B	.11	1	.11	.32
	A × C	.18	1	.18	.51
	B × C	.35	1	.35	1.00
	A × B × C	.60	1	.60	.19
행동적 적응	성별(A)	22.38	1	22.38	22.04***
	학교유형(B)	17.23	1	17.23	16.97***
	이성교제 유무(C)	73.76	1	73.76	72.67***
	A × B	4.15	1	2.29	4.09*
	A × C	2.29	1	.25	2.54
	B × C	.25	1	.82	.24
	A × B × C	.82	1	.82	.81

\*p<.05 \*\*p<.01 \*\*\*p<.001



〈그림 1〉 학교유형과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가족관계



〈그림 2〉 성별과 학교유형에 따른 행동적 적응

하였다. 가족관계는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주효과 ( $F=6.40, p<.05$ )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 유형과 이성교제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 $F=8.91, p<.01$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가족관계에서 실업계 학생들은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인문계 청소년은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보다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더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는 학교 유형( $F=5.89, p<.05$ )과 이성교제 유무( $F=9.78, p<.01$ )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보다, 그리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보다 가족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지각하였다. 학교생활은 학교유형에 따른 주효과( $F=12.10, p<.01$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과 이성교제 유무에 상관없이 실업계 청소년이 인문계 청소년 보다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은 성별( $F=11.05, p<.01$ )과 학교유형( $F=5.54, p<.05$ )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이성교제 유무와 상관없이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실업계 청소년이 인문계 청소년보다 심리적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적응은 성별( $F=22.04, p<.001$ ), 학교유형( $F=17.23, p<.001$ ), 이성교제 유무( $F=72.67, p<.001$ )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학교유형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F=4.09, p<.05$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학생은 인문계 청소년이 실업계 청소년보다 행동적 적응에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유무에 따라 가족 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성과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아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성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상담, 교사의 생활지도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의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학교생활과 행동적 적응에서 차이를 보여 이성교제를 하는 남학생은 학교생활에 문제가 많고 문제 행동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성에 빠져 있는 남학생들은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성행위와 같은 성적인 측면에 몰입한다는 Eshel, Sharabany와 Friedman(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학생은 친구관계와 행동적 적응에서 차이를 보여, 이성교제를 하는 여학생은 친구관계는 원만하지만 일탈이나 비행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교제에 있어 친구의 역할이 중요하여 동성의 친구에게 이성친구가 있거나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친구들이 지지하는 집단이 이성교제에 몰입하고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연구결과(Leaper & Anderson, 1997)와 일치하는 것으로 비루어 성별에 관계없이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성교제로 인하여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친구관계가 변화될 수 있고 여학생의 친구와 관계는 가족과의 친밀감의 연장선으로서 이성관계가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만나는 횟수나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는 Zimmer-Gembeck(1999)의 연구를 지지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차이를 추후 연구에서는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의 학교유형별 차이를 본 결과, 인문계 청소년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행동적 적응에서 차이를 보여, 이성교제를 하는 인문계 청소년은 가족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지만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은 잘 해나가고 있으며 행동적 적응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에 대한 기대가 큰 인문계 고등학생의 부모(이재구, 2000)에게는 이성교제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부모-자녀간에 불화가 될 것으로 추측된다. 실업계 청소년 또한 친구관계, 학교생활, 행동적 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적고 행동 문제의 발생 빈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친구관계, 학교생활, 행동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행동적 적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는 청소년 시기를 무엇보다도 공부에 치중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어 이성교제와 같이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더불어 청소년기에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음을 밝혀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기 이성교제는 성인을 모방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시기이므로 자칫 미성년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음주·흡연 또는 성행위 등을 하기도 전에 지지받거나 또는 충고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욱 일탈행동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성교제 자체를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사회환경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더 가려져 있게 되므로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건전한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고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은 잘 해나가고 있다는 측면은 이성교제가 동성친구와의 관계와 공존할 수 있고 이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이성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주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와 더불어 친구와 잘 지낼 수 있고 학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교사와 부모들은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성별, 학교유형 및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본 결과, 가족관계는 학교유형과 이성교제 유무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행동적 적응은 성별과 학교유형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세 변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에서는 인문계 청소년이 실업계 청소년 보다 이성교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청소년은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인문계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가족관계가 더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인문계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업기대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청소년 부모의 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학생지도를 위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이성교제와 학업과의 관계, 이성교제와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인문계 학교 교사들은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학업에 관심을 두는 부모 면담에서 이성교제가 부모와 청소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성과의 관계와 부모-자녀와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행동적 적응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인문계 청소년이 실업계 청소년보다 행동적으로 적응하는데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동적 적응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관계 특성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한국청소년개발원, 1995)에서 보듯이, 인문계 청소년들이 이성교제 기준을 우정의 개념에 더 비중을 두고 동성친구의 개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상형, 느낌과 같은 개인 내적인 환상에 더 치중하여 이성교제를 정의내리는 것인지 이성교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성교제를 정의내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한 후 이를 근거해서 후속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주시와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고등학교 2학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1,011부를 분석할 수 있었지만 이성교제를 하는 집단과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집단간의 편차가 크다. 조사 대상자의 수는 많지만 이성교제를 하는 집단과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 집단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의 이성교제 개념 정의와 청소년 본인이 보는 이성교제에 대한 개념 정의의 차이로 인한 해석상의 오차가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성교제의 개념적 정의를 구분하여 응답자에게 질문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이성교제의 범위를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만 살펴 보았기 때문에, 이성교제 기간, 이성교제 시기, 만나는 횟수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성 친구와 처음 만난 시기와 현재 교제하는 친구와 만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만나는 횟수에 따라 이성교제의 성격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Zimmer-Gembeck, Sieben-bruner, & Collins, 2001)를 볼 때,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다. 우선 이성교제 연구가 실패 조사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하여 청소년의 생활환경과 적응을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심리적 적응, 행동적 적응 등 생활환경까지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 학교유형, 이성교제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에 있어 성별과 학교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따라 사회심리적 적응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특히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학교 교사, 청소년 관련 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유용하게 참고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이성교제 유도 및 일탈 및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태순(1994).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문환(1994).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1992).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태(1989). 학교상담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학생지도연구 4집.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령(1998).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영란(1980). 고등학생의 이성관과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도시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계화(1988). 중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구(2000). 부모의 학업기대 유형과 청소년의 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숙·김영희·박경옥·이희숙·채정현·이종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175-197.

최상진(1983). "청소년과 이성교제(2)",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95-05.

Connolly, J. & Goldberg, A.(1999).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The role of friends and peers in their emergence and development. In W., Furman(Ed), *The Development of*

-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ling, N., Dowdy, M., Horn, L. V., & Caldwell, L. L.(1999). Mixed-sex settings and the perception of compet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4), 461-480.
- Dowdy, B. B., & Kliwer, W.(1998). Dating,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behavioral autonom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473-492.
- Eshel, Y., Sharabany, R., & Friedman, U.(1998). Friends, lovers and spouses: Intimacy in young adul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41-57.
- Joyner, K., & Udry, J. R.(2000). You don't bring me anything but down: Adolescent roma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 369-391.
- LaVoie, J. C., Johnson, D., Mahoney, M., Ramet, J. & Anderson, B.(1998). *Boundary determinants in adolescent same-sex and cross-sex relationships*. Paper presented at the 7th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Leeper, C. & Anderson, K. J.(1997). Gender development and heterosexual romantic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In S., Shulman & W.A., Collins(Eds)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erspectives*, 85-10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aysless, O., Wiseman, H., & Hai, I.(1998).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father, mother, and same-sex frien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101-123.
- Sharabany, R., Gershoni, R., Hofman, J. E.(1981). Girlfriend, Boyfriend: Age and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800-808.
- Shulman, S. & Seiffge-Krenke, I.(2001). Adolescent romance: Between experience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24, 417-428.
- Simons, R. I., Johnson, C., & Congner, R. D.(1994). Harsh corporal punishment versus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s an explanation of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91-607.
- Springer, D. W.(1988). Validation of the adolescent concerns evaluation(ACE): Detecting indicators of runaway behavior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2, 241-250.
- Sroufe, L. A. & Flesson, J.(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 51-77. Hillsdale, NJ: Erlbaum.
- Strommen, M. P., & Strommen, I.(1985). *Five cries of parents*. Sanfrancisco: Harper & Row.
- Zimmer-Gembeck, M. J.(1999).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nvolvement with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among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4), 419-434.
- Zimmer-Gembeck, M. J., Sieben-bruner J., & Collins, W. A.(2001). Diverse aspects of dating: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functioning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4, 313-336.